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권해수** · 김현정***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1주 과정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보고 뿐만 아니라 의뢰교사로부터 참여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평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추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여부를 파악하였고,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요소로서 치료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대안교육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의 자기통제능력, 공감능력이 향상되었고, 공격성과 공격신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신념을 제외한 자기통제력, 공감능력, 공격성 변화가 추후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 흥미, 유용성 가치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료적 요인 중 적극적 참여는 자기통제 증가, 공격성 감소, 과제가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공격성 감소에,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는 공격신념의 감소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은 공감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뢰교사에 의해 참여학생들의 복교 이후 행동 변화를 평정한 결과, 참여학생들은 학교적응지표인 출결사항, 학교교직존수, 자기절제, 자존감, 타인공감 및 배려, 학교유대감 등 보호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효과

* 본 연구는 법무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이며,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제1저자, hskwon@choson.ac.kr

*** 법무부 소년과, 공동저자

I. 서 론

최근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청소년 비행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재범률을 보더라도 지난 70년대에는 재범 소년이 전체 소년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90년대에는 20%를 넘기면서 최근에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년재범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다(원혜욱, 2009; 박영규, 2012).

소년재범률이 여전히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법시스템이 아무리 잘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청소년이 되돌아갈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요소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재범방지 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이정주, 2012). 소년사법의 목적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라고 한다면 이미 범죄 성향이 고착화된 대상자들을 위한 재범예방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비행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초기 비행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비행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인섭, 이순래, 2009).

이러한 배경 하에 소년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년법 등 소년사법이 2007년 12월 21일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2008년 6월 22일 새롭게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소년사법의 주무국도 보호국에서 새로운 명칭의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변경하였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를 근거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기존 사후집행적 재범방지 정책 중심이었던 소년사법정책이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이 정비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송화숙, 2008).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2년 현재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법교육,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청소년적성검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주력하고 있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처분 대상자를 대상으로 3일 과정, 1주 과정, 2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단기집중형 비합숙 통학형 위탁교육이다(안산대안교육센터, 20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은 자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교폭력, 절도, 성비행, 교통안전, 중독 등 문제유형별로 전문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의뢰 기관과 비행

문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반이 편성되고, 담임교사에 의해 전문교육과 개인상담, 그리고 교육생 관리가 이루어지며, 출석, 수업태도, 생활태도, 교우관계에 대해 질서 있고 엄격한 생활지도와 평가가 진행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2007년 개소 이후 매년 연간 2,300여명의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해왔다. 특히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범부처간 협약 이후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비행 예방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고(박찬걸, 2012; 허경미, 2010),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라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운영 취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효과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른 효과성 차이를 보는 성과 연구가 대부분이었다(한길자, 2012). 성과 연구는 특정 프로그램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실험설계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험설계 방식의 효과 연구가 내적타당도가 높은 설계라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하였지만 ‘효과를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효과를 측정하는 것일까?’ 등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프로그램 성과 연구에서는 측정원의 다변화라는 점(김계현, 2000)을 강조하면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이현아, 이기학, 2010; Maxwell, 2009). 학교, 검찰, 법원 등의 의뢰로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비자발적이고 교육 참여 동기가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양미진, 이영희, 2006) 이러한 이유로 비자발적이고 교육 참여 동기가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성과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보고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 참여집단의 경우 참여학생의 자기보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참여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평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의 제한점으로 프로그램의 주진행자

및 평가자가 연구자 한 사람이었고, 연구집단 및 통제집단이 각각 한 집단으로 표집의 수가 적다는 점, 그리고 추후평가가 누락되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김주섭, 2000; 구현지, 문경주, 오경자, 2007; Guerra, Kim & Boxer, 2008).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무엇이 그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 변인은 간과되어 왔다(권경인, 조수연,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성과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여 참여학생의 자기보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로부터 참여행동의 변화를 평정하고, 전국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진행자 변인을 줄이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요인으로 치료적 요소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처분 대상자 등 세 유형의 대상자에게 실시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추후 연구설계를 충족시킬 수 있고, 관련된 주체로부터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으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의뢰하는 학생들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의뢰되는 세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법무부 내부자료, 2012), 타 유형에 비하여 비행 수준이 경미하므로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초기 비행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안교육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나고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운영 근거 및 확대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차지하는 대안교육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 관한법률 제42조의2에 의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서 의미하는 대안교육과는 다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은 위기·비행 초기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법무부 자체에서 개발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대안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은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된 부적응학생 및 복교 전 중도탈락 학생,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기소유예 대상 소년,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보호관찰 부가처분을 받는 소년 등이다. 이들에게는 3일 과정(21시간), 1주 과정(35시간), 2주 과정(70시간)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교육 기간에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일반교육)이 실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은 단기집중형 비합숙 통학형 위탁교육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1주 과정 교육시간표이다.

표 1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주 과정 교육시간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교시	오리엔테이션	전문교육②	전문교육③	전문교육④	전문교육⑤
2교시					
3교시	심리검사 및 해석	장애체험	정보화	원에치료	법교육
4교시					
점심식사					
5교시	명상 및 체력단련	생활예절	등산	암벽등반	소감문 작성 및 수료식
6교시					
7교시	전문교육①	담임시간		교통안전교육	
8교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서 다른 대안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 첫째, 의뢰 기관

과 비행문제 유형에 따라 10~12명 내외로 반이 편성되며,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학 교폭력, 절도, 성비행, 교통안전, 흡연 및 알콜, 인터넷중독 등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이 각 10시간씩 제공된다. 표 2와 표 3은 ‘폭력’과 ‘절도’ 전문교육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 다. 둘째, 참여학생들의 교육 동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몸으 로 느끼고 가슴으로 깨우치는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체험활동은 센터의 물리적 여건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례로 장애체험 도미노, 모듬북, 예절교육, 원예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암벽등반, 건물레펠, 금연교육, 모의재판 등이 있다. 셋째, 대안 교육프로그램은 심리학, 교육학 범죄학, 사회복지학 등 상담 관련 전공자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비행청소년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담임을 맡는다. 대안교육은 이들에 의해 문제유형별 전문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생 상담·행동관찰, 문 제 학생 지도 등 전반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석, 수업태도, 생활태도, 교우관계에 대해 질서 있고 엄격한 생활지도와 교육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표 2
폭력비행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회기	단원명	활 동	목 표
1-1	나 이런 사람이야	• 프로그램 소개 • 운영자 소개 • 나의 목표와 다짐 • 자기소개	○ 프로그램 및 운영자를 소개한다. ○ 나의 목표와 다짐 을 작성한다. ○ 자기소개를 통해 상호간 친밀감을 형성한다.
1-2	폭력이 뭐야?	• 폭력 퍼즐 • 폭력 정의 및 유형 • 알쏭달쏭 폭력 퀴즈	○ 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 퀴즈를 통해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는다.
2	폭력의 후유증	• 폭력의 심각한 현실 • 폭력의 후유증 • 폭력 후 법적 절차	○ 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깨닫는다. ○ 폭력의 후유증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 폭력에 대한 법적절차 및 처벌 기준을 이해한다.
3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	• 폭력이 심해지면 병 • 나의 공격성 알아보기 • 피해자 상치 공감하기 • 폭력의 결과 탐색하기	○ 폭력이 심각해지면 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자신의 폭력행위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됨을 인식한다.

회기	단원명	활 동	목 표
4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 폭력 vs 비폭력 • 화를 조절하는 방법 찾기 • 폭력 근절을 위한 자세	○ 폭력행위를 통해 실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는지 탐색해보고 대안행동을 찾는다. ○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배운다.
5	나의 미래 설계하기	• 가정과 학교의 어려움 극복하는 방법 찾기 • 행복한 미래 설계하기 • 나와의 약속 작성하기	○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에서의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미래를 설계하고 나와의 약속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상을 만든다.

※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1주 과정으로 1회기는 2교시 교육을 의미함.

표 3

절도비행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회기	단원명	활 동	목 표
1	넌 알려줘!	•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 나의 목표와 다짐 • 나를 소개합니다.	○ 프로그램 및 운영자 소개, 나의 목표와 다짐을 작성하여 참가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 미술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참가 동기를 높인다.
2	절도! 넌 뭐니?	• 절도란? • 절도 법교육	○ 절도의 정의를 내려 봄으로써 절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본다. ○ 절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처벌에 대해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
3	왜! 그랬을까?	• 절도 원인탐색 • 절도 결과탐색	○ 절도 경험을 생각하고 원인을 탐색해본다. ○ 절도로 야기되는 피해를 확대하여 생각해 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임을 인식한다.
4	선택과 책임은 내 것!	• 자유와 선택, 책임 • 대안행동 찾기	○ 행동의 결과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책임 이행 능력을 발휘할 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 절도 상황에서의 대안행동을 찾아본다.
5	인생은 아름다워!	• 미래설계하기 • 변화된 내 모습 • 나와의 약속	○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보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만든다. ○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 절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 가짐을 다지도록 한다.

※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1주 과정으로 1회기는 2교시 교육을 의미함.

2.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효과 분석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격성과 충동성 감소를 통해 비행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구체적으로, 정윤정, 윤희숙, 신지현, 김성근과 장성화(2012)의 연구에서 소년보호시설 여자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공격성과 충동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안명선과 이수연(2008)의 연구에서 소년생원을 대상으로 현실요법 개념에 근거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폭력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선경과 박인숙(2005)의 연구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전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둘째, 공격성,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행동 감소뿐 아니라 친사회적 기술 향상 등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감과 협동, 자기주장훈련, 자기통제능력 등과 같은 친사회적 기술 함양 프로그램이 폭력행동, 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되었다. 이재경(2000)은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충동억제, 분노조절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고자 고안된 9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능력과 자존감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구현지, 문경주와 오경자(2007)의 연구에서도 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직후 뿐 아니라 1개월 후에 측정된 추후 보고에서도 비행 행동이 감소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송성자와 정문자(2002)의 연구에서도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존감과 감정통제능력이 향상되었다. 김자경과 손정락(2007), 황진규(2010)의 연구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프로그램과 자기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삶의 목적과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고, 천성문, 이영순과 이현림(2000)의 연구에서도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분노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분노조절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비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비행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최영신, 김윤나와 김용성(2009)의 연구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수강명령대

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법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범의식의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법에 대한 흥미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법지식 및 법개념을 새로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영, 김원희와 이동훈(2011)의 연구에서 절도 및 폭력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기반의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억눌렸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해봄으로써 공격 신념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넷째, 교사의 인식과 학교 및 환경의 변화를 통해 비행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구현지 외(2007)의 연구에서 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프로그램 실시 이후 교사의 평정에서 문제행동 적발 빈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감소량이 더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행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학교활동과 학교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학교적응력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증진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른 효과성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 연구집단과 통제집단의 표집의 수가 적었다는 점, 추후평가가 누락되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 프로그램 성과 연구에서는 측정원의 다변화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Garland et al.(2004)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청소년, 부모, 상담자들이 원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들 간의 일치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 이해관계자 간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대하여 낮은 일치율을 보여주었다. 이현아와 이기학(2010)은 학생과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상담서비스에 대한 도움요소와 불만족요소를 비교한 결과, 상호간 도움요소와 불만족요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 한 입장에서만 학교상담의 도움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은자(2009)은 기업상담의 효과에 대한 기업 측의 관리자, 상담자, 내담자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세 주체간 기업상담의 효과에 대한 개념이나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 효과 연구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관여하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한길자, 201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전국 7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안산, 광주, 부산, 대구)의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흡연, 절도 등의 문제로 의뢰된 청소년들이며 문제유형별로 1주 과정의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체로부터 참여학생들의 변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교사에게 참여학생의 복교 이후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평정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총 85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2. 연구 절차

단기집중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7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249명이 참여하였다. 사후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주 과정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하였으며 총 244명이 참여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일부 학생들이 출결, 규칙 위반 등으로 퇴교 조치를 당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추후검사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2주 이후 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124명이 참여하였다. 추후검사는 의뢰교사의 협조 하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의뢰교사의 명단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의뢰교사가 추후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참여학생의 추후검사가 누락되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51%인 124명만이 추후검사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모두 응답한 1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원으로부터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뢰교사에게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복교 후 2주간 주요 적응 지표에 대한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평정도록 부탁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의뢰교사에게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뒤 명단을 본 연구진에게 제공하였으며, 이후 연구진에서 일대일 접촉을 통하여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사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허락한 교사들에게 설문지와 답례품, 회송용 봉투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우편으로 연구진에게 전달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총 85부이었다.

3. 측정 도구

학교 및 교육청에서 의뢰되는 학생들의 문제유형은 학교폭력과 절도, 흡연, 지시불이행 등의 학교부적응행동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부적응 행동 및 폭력 행동의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밝혀진 변인들을 중심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위험요인으로는 공격성, 공격신념, 우울불안을, 보호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 공감을 선정하였다.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의뢰되는 학생들은 강제적 참여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이 높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교육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과제가치척도를 실시하였다. 과제가치척도는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의 유용성과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비자발적 참여집단의 교육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1) 자기통제력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참가학생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의 자기통제력 평정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한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보다 집중력이 있고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 10개와 충동적이고 자신 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즉각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10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2) 공격성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참가학생들의 공격성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격성척도를 측정하였다. 공격성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을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만든 AQ-K(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를 사용하였다. AQ-K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6문항 중 적대감 8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8이었다.

3) 공격신념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참가학생의 공격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격신념척도를 측정하였다. 공격신념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는 공격행동을 지지하는 청소년의 공격신념을 측정하기 Slaby와 Guerra(1988)에 의해 개발하고 정유진과 유미숙(2012)이 번안하여 타당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격신념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공격행동의 정당성(3문항),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6문항), 부정적 이미지 탈피(3문항), 피해자에 대한 정당성(3문항), 피해자의 고통(3문항)의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의 정당성 3문항과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6문항으로 공격신념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격신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7이었다.

4) 우울/불안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참가학생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울/불안척도를 측정하였다. 우울/불안척도는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와 이혜련(2001)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자기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의 하위 차원이며,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불안척도의 내적합치도 .91이었다.

5) 공감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참여학생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감척도를 측정하였다. 공감척도는 Davis(1980)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를 김성은(1997)이 청소년용으로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 관점취하기(perspective taking) 7문항, 상상하기(fantasy) 7문항,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7문항,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7문항, 총 28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의 하위차원인 관점취하기 7문항과, 정서적 공감의 하위차원인 공감적 관심 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감척도의 내적합치도 .78이었다.

6) 과제가치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제가치척도를 측정하였다. 과제가치척도는 Eccles와 Wigfield(1985)의 분류에 따라 양명희(2000)가 과제가치를 중요성, 흥미, 유용성으로 구성하였고, 한순미(2003)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과제가치척도는 중요성가치 2문항, 흥미가치 2문항, 유용성가치 2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과제가치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다.

7) 치료적 요소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권경인(2001)이 번안한 치료적 요인 척도 중에서 긍정적 수용적 분위기 형성(교사와의 관계) 4문항,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 3문항, 집단 몰입과 적극적 참여 4문항,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3문항,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료적 요인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8) 교사평정용 학생 행동변화 관찰 체크리스트

본 연구에서는 의뢰교사들이 지각한 참여학생들의 복교 이후 행동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평정용 관찰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다. 체크리스트는 학교적응지표, 위협요인, 보호요인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지표는 출결사항, 수업태도, 학업성적, 교칙준수의 4개 항목, 위협요인은 폭력행동, 비행친구들과 어울림, 약물복용의 3개 항목, 보호요인은 주요 인물(예, 교사, 또래, 선후배)과의 관계, 자존감, 자기통제, 타인 공감과 배려, 학교유대감의 7개 항목이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통제, 공격성, 공격신념, 우울불안, 공감, 과제가치 수준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간 변화 정도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친 치료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변인들의 사전, 사후검사의 점수 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치료적 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복교 이후 행동 변화를 파악하고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 일반 특성 분석

대안교육프로그램 참여학생과 의뢰교사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 4와 같다. 참여학생의 인적사항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101명(81.57%)으로 여학생 23명(18.5%)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았을 때 고등학생이 88명(71.0%)으로 중학생이 36명(29.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가학생의 처벌경험은 ‘학교징계’가 95명(78.2%)으로 거의 대부분의 참가학생들이 학교징계의 경험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찰훈방’ 27명(21.8%), ‘기소유예’ 13명(10.5%), ‘보호관찰’이 15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참가학생의 의뢰사유로는 ‘흡연’이 42명(4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폭력’ 27명(28.9%), ‘지시불이행’ 27명(21.0%), ‘절도’ 22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의뢰교사의 ‘학교급별’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56명(65.9%), 중학교 29명(34.1%)이었으며, ‘교직경력’은 10년 이하 44명(51.7%), 21년 이상 22명(25.9%), 11년 이상 20년 이하 19명(22.4%)의 순이었다. ‘직책’은 담임교사 37명(43.5%), 학생부교사 23명(27.1%), 인성부장 21명(24.7%), 전문상담교사 4명(4.7%)의 순이었다.

표 4

연구대상자의 기본 특성

(단위: 명, %, N=124)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01
여자	23		18.5	
참여학생	학교급별	중학교	36	29.0
		고등학교	88	71.0
참여학생	처벌경험	학교징계	95	78.2
		경찰훈방	27	21.8
		기소유예	13	10.5
		보호관찰	15	12.1

		구분	빈도	백분율
	의뢰사유	폭력	27	21.8
		절도	21	16.9
		흡연	42	33.9
		지시불이행	26	21.0
의뢰교사	학교	중학교	29	34.1
		고등학교	56	65.9
	경력	10년 이하	44	51.7
		11~20년	19	22.4
		21년 이상	22	25.9
	직책	인성부장	21	24.7
		담임교사	37	43.5
		전문상담교사	4	4.8
학생부교사		23	27.1	

2.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분석

1) 자기통제 수준의 변화

대안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 공격성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대안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 참가학생들의 ‘장기적 만족’은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단기적 만족’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적 만족 $t=2.42, p<.01$; 즉각적 만족 $t=-6.32, p<.001$).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추후 검사에서 ‘장기적 만족’은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가 유지되었으나(장기적 만족 $t=3.70, p<.001$), ‘즉각적 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자기통제 수준의 차이분석 결과

척도	사전		사후		추후		t	
	M	SD	M	SD	M	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장기적 만족	29.48	4.83	31.51	5.78	31.54	5.34	2.42**	3.70***
즉각적 만족	26.45	5.77	26.04	6.52	26.23	5.58	-6.32***	-.27
계	55.42	6.73	57.88	6.55	57.67	6.97	6.33***	2.89**

*** $p < .01$, ** $p < .001$

2) 공격성 수준의 변화

대안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 공격성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체적 공격 $t = -4.42$, $p < .001$; 분노감 $t = -4.20$, $p < .001$). 이에 반해 언어적 공격성 수준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추후검사에서도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가 유지되었으나, ‘언어적 공격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신체적 공격 $t = -2.92$, $p < .01$; 분노감 $t = -2.12$, $p < .05$).

표 6
공격성 수준의 차이분석 결과

척도	사전		사후		추후		t	
	M	SD	M	SD	M	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신체적 공격	23.80	4.47	22.38	5.32	22.35	4.56	-4.42***	-2.92**
언어적 공격	14.03	2.12	13.81	2.77	13.76	2.69	-.39	-.96
분노감	15.62	3.42	14.92	3.17	14.94	3.17	-4.20***	-2.12*
계	53.45	7.94	51.02	10.12	51.11	8.55	-4.02***	-2.56**

* $p < .05$, ** $p < .01$, *** $p < .001$

3) 공격신념 수준의 변화

대안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 공격신념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관련 공격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공격행동의 정당성 관련 공격신념’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공격신념 $t=-3.27$, $p<.001$).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추후검사에서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관련 공격 신념’에서의 변화가 유의하게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공격신념 수준의 차이분석 결과

척도	사전		사후		추후		<i>t</i>	
	M	SD	M	SD	M	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9.91	3.67	9.30	3.40	9.80	3.98	-3.27***	-.25
공격행동의 정당성	8.72	2.42	8.75	2.62	8.43	2.59	.119	-.99
계	18.60	5.40	18.05	4.87	18.23	4.69	-2.64**	-.44

*** $p<.001$

4) 우울/불안 수준의 변화

대안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 우울/불안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우울/불안’수준은 사전검사에 비하여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추후검사에서는 우울/불안 수준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2.39$, $p<.01$).

표 8

우울/불안 수준의 차이분석 결과

척도	사전		사후		추후		t	
	M	SD	M	SD	M	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우울불안	22.97	6.23	22.90	6.86	21.54	5.77	-1.58	-2.39**

* $p < .05$, ** $p < .01$

5) 공감 수준의 변화

대안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 공감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타인 관점’과 ‘공감적 관심’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증가하였으며(타인 관점 $t=10.64$, $p < .001$; 공감적 관심 $t=3.83$, $p < .001$),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추후검사에서도 그 변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타인 관점 $t=6.84$, $p < .01$; 공감적 관심 $t=2.47$, $p < .01$).

표 9

공감 수준의 차이분석 결과

척도	사전		사후		추후		t	
	M	SD	M	SD	M	SD	사전-사후	사전-추후
타인 관점	20.21	4.24	22.84	4.32	23.48	4.59	10.64***	6.84**
공감적 관심	6.27	1.45	6.61	1.68	6.67	1.74	3.83***	2.47**
계	26.84	5.42	29.15	4.90	30.17	5.83	7.95***	5.64***

** $p < .01$, *** $p < .001$

6) 과제가치 수준의 변화

대안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 과제가치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10에 제시하였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중요성가치, 흥미가치, 유

용성가치는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중요성가치 $t=3.6$, $p<.001$; 흥미가치 $t=10.41$, $p<.001$; 유용성가치 $t=9.61$, $p<.001$),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사후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요성 가치 $t=2.31$, $p<.05$; 흥미 가치 $t=6.99$, $p<.001$; 유용성 가치 $t=7.23$, $p<.001$).

표 10
과제가치 수준의 차이분석 결과

척도	사전		사후		추후		t	
	M	SD	M	SD	M	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중요성 가치	6.54	1.55	7.19	1.68	7.04	1.85	3.6***	2.31*
흥미 가치	5.73	1.83	7.55	1.96	7.43	2.25	10.41***	6.99***
유용성 가치	5.89	1.70	7.49	1.82	7.57	2.04	9.61***	7.23***
계	18.17	4.55	22.28	5.05	22.05	5.63	9.25***	6.24***

* $p<.05$, *** $p<.001$

3. 치료적 요인이 프로그램 성과에 미친 영향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친 치료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주요 변인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치료적 요인 척도의 4가지 요인인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 적극적 참여,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치료적 요소 중 ‘적극적 참여’가 자기통제 증가($\beta=.33$, $p<.01$)와 공격성 감소($\beta=-.37$, $p<.01$), 과제가치 증가($\beta=.53$,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공격성 감소($\beta=-.33$,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는 공격성 감소($\beta=-.41$,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은 공감 증가($\beta=.36$,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요 변인의 사전-사후 변화량에 대한 치료적 요인의 종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F
자기통제	적극적 참여	.76	.33	2.44**	.098	.082	6.07***
공격성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87	-.33	-2.40**	.073	.056	4.38**
	적극적 참여	-.99	-.37	-2.71**			
공격신념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	-.85	-.41	-2.90**	.085	.069	5.39***
공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71	.36	2.72**	.206	.192	15.10***
과제가치	적극적 참여	.85	.53	5.63***	.543	.535	69.27***

** $p < .01$, *** $p < .001$

4. 교사가 지각한 대안교육프로그램 참여학생 복교 이후 행동 변화

대안교육프로그램 참여학생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교사가 참여학생들의 행동변화 수준을 평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참여학생의 행동변화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교사와의 관계(72.6%), 출결사항(72.1%), 폭력행동(71.7%), 또래와의 관계(70.7%)이었다. 의뢰학교 교사들은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교 복교 이후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학교부적응의 핵심 지표인 출결사항과 폭력행동이 나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교칙준수(68.9%), 자존감(66.0%), 타인공감 및 배려(63.2%), 자기절제(61.9%), 학교유대감(61.8%) 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학교 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요인에 해당되는 자존감, 타인공감 및 배려, 자기절제, 학교 유대감 항목에서도 프로그램 이수 이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수업태도(51.2%)와 학업성적(27.5%) 항목은 다른 요인에 비하여 변화의 폭이 적었다. 특히 위험요인 중 술, 담배 등과 같은 약물오남용(46.8%), 비행친구들과 어울림(38.3%) 항목에서도 변화의 폭이 적게 나타났다. 수업태도, 학업성적, 약물오남용과 같은 위험요인 항목들은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형성된 태도로서 단기집중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쉽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관찰한 이수학생들의 행동변화 수준을 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

았다. 고등학생들은 출결사항, 수업태도, 교사와의 관계, 또래친구와의 관계, 자기절제 항목에서는 중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결사항 $t=6.67$, $p<.01$; 수업태도 $t=5.35$, $p<.05$; 술, 담배 등 약물복용 $t=2.24$, $p<.05$), 교사와의 관계 $t=4.40$, $p<.05$; 또래와의 관계 $t=4.76$, $p<.05$; 자기절제 $t=4.12$, $p<.05$).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하여 출결사항(중학생 62.1%; 고등학생 82.0%), 수업태도(중학생 40.5% ; 고등학생 61.8%), 교칙준수(중학생 64.9% ; 고등학생 72.7%) 등 학교적응 지표에서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중학생 67.6% ; 고등학생 77.5%), 또래친구와의 관계(중학생 64.9% ; 고등학생 76.4%) 등 관계 영역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보호요인에 해당되는 자기절제(중학생 54.0% ; 고등학생 69.6%)와 위험요인에 해당되는 술, 담배 등 약물복용(중학생 43.3% ; 고등학생 50.5%)에서도 고등학생의 변화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교 복교 이후 학교적응 지표, 주요 인물과의 관계, 보호요인 등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더 많은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교사들이 관찰한 대안교육 참여학생 복교 이후 행동 변화 (단위: %)

특성	구분	조금 나아졌다	매우 나아졌다	종합	집단 간 차이	
				좋아짐(%)	평균(표준편차)	t
출결사항	중	48.6	13.5	62.1	3.49 (1.10)	6.6**
	고	56.2	25.8	82.0	3.98 (.92)	
	합계	52.4	19.7	72.1	3.83 (.99)	
수업태도	중	37.8	2.7	40.5	3.27 (.77)	5.35*
	고	51.7	10.1	61.8	3.63 (.80)	
	합계	44.8	6.4	51.2	3.52 (.80)	
학업성적	중	16.	10.8	26.8	3.10 (.99)	.27
	고	23.6	4.5	28.1	3.19 (.74)	
	합계	19.8	7.7	27.5	3.16 (.82)	
폭력행동	중	54.1	16.2	70.3	3.84 (.73)	.09
	고	48.3	24.7	73.0	3.89 (.92)	
	합계	51.2	20.5	71.7	3.87 (.87)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에 의뢰된 초기 단계 비행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효과

특성	구분	조금 나아졌다	매우 나아졌다	종합 좋아짐(%)	집단 간 차이	
					평균(표준편차)	<i>t</i>
학교교칙 준수	중	56.8	8.1	64.9	3.65 (.75)	1.27
	고	54.5	18.2	72.7	3.83 (.85)	
	합계	55.7	13.15	68.9	3.78 (.82)	
비행친구들과 어울림	중	18.9	8.1	27.0	3.24 (.70)	1.94
	고	31.5	18.0	49.5	3.50 (1.02)	
	합계	25.2	13.1	38.3	3.43 (.97)	
술담배 등 약물복용	중	37.8	5.4	43.2	3.16 (1.01)	2.24*
	고	29.2	21.3	50.5	3.48 (1.12)	
	합계	33.5	13.4	46.8	3.39 (1.10)	
교사와의 관계	중	56.8	10.8	67.6	3.72 (.77)	4.40*
	고	52.8	24.7	77.5	4.02 (.69)	
	합계	54.8	17.8	72.6	3.94 (.72)	
또래친구와의 관계	중	54.1	10.8	64.9	3.70 (.74)	4.76*
	고	47.2	29.2	76.4	4.03 (.79)	
	합계	50.65	20	70.7	3.94 (.79)	
선후배와의 관계	중	43.2	16.2	59.4	3.70 (.81)	.41
	고	31.5	25.8	57.3	3.81 (.86)	
	합계	37.4	21	58.4	3.78 (.85)	
자존감	중	54.1	8.1	62.2	3.65 (.72)	2.83
	고	49.4	20.2	69.6	3.89 (.73)	
	합계	51.8	14.2	66.0	3.82 (.73)	
자기절제	중	37.8	16.2	54.0	3.57 (.99)	4.12*
	고	44.9	24.7	69.6	3.91 (.80)	
	합계	41.4	20.5	61.9	3.81 (.87)	
타인공감 및 배려	중	51.4	10.8	62.2	3.57 (.96)	1.95
	고	41.6	22.5	64.1	3.80 (.96)	
	합계	46.5	16.7	63.2	3.74 (.89)	
학교유대감 (소속감)	중	48.6	10.8	59.4	3.62 (.83)	.26
	고	47.2	16.9	64.1	3.71 (.88)	
	합계	47.9	13.9	61.8	3.68 (.86)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1주 과정 단기집중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자기보고 뿐만 아니라 의뢰교사로부터 참여학생들의 변화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 진행자 변인을 줄여 일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과정 요소로서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7곳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안교육프로그램은 참가학생의 자기통제, 공격성, 공격신념, 공감, 과제가치 수준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안교육프로그램은 비행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에 해당되는 자기통제능력과 공감능력을 높이고, 위험요인에 해당되는 공격성과 공격신념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안교육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통제, 공격성, 공감척도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가 유의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신념척도점수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의 대안교육프로그램으로는 공격행동 신념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가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격신념 변화를 위한 인지 영역의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에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개발한 종합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프로그램들은 인지적 치료를 강조하고 있으며(최인섭, 이순례, 2009), 청소년 재범 효과 관련 메타분석 연구(손병덕, 2010; Landenberger & Lipsey, 2005)에서도 인지행동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 기법을 통해 충동성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인지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향후 문제영역별 전문교육에서 인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역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친 치료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참여'가 자기통제력 향상, 공격성 감소, 과제가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의뢰되는 청소년들은 비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과 참여 동기가 낮고 지도자에 대한 저항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담당교사의 밀착형 관리에 의해 엄격한 출결과 교육 규칙을 준수하는 즐거움을 자각하고, 전문교육과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통제력이 향상되고 공격성이 감소되었으며, 교육의 유용성, 중요성, 흥미 가치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공격신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학생들은 문제영역별 전문교육을 통해 본인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증진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활동들이 공격 신념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뢰교사에 의해 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의 복교 이후 행동 변화를 평정한 결과 참여학생들은 학교 복교 이후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학교적응의 핵심 지표인 출결사항, 폭력행동, 교칙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절제, 자존감, 타인공감 및 배려, 학교유대감 등 보호요인의 항목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비행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문제영역별 전문교육이 참여학생들에게 학교부적응 및 폭력 등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은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존감이 향상되며, 자기를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은 담임교사에 의해 출결관리와 생활지도가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이러한 생활지도가 참여학생들의 복교 이후 출결, 수업태도, 학교교칙 준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후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추후(follow-up)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추후평가 자료가 학교 복귀 후 교사를 통해 수집되다보니 참여학생의 51%의 자료만 수집되어 자료가 일정 부분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쪽으로 편포되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추후평가 과정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부 평가원으로 의뢰교사의 관찰에 의한 평정만을 고려하였다.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의 경우 강제적 규제 범위를 벗어난 학교 이외의 장소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전체 비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구현지 외, 2007), 부모 평정자료는 객관적인 관찰 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까지 평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비행은 그 특성상 비행의 이면에 가정, 학교 등을 둘러싼 문제가 많다. 특히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나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요인이 된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 범죄 재범효과 관련 메타 분석 연구에서 가족치료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과 부모양육 태도 개선이 청소년의 재범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oolfenden, Williams & Peat, 2002). 향후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동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혹은 부모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원 수용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효과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면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되는 집단 중 학교 및 교육청 의뢰 집단으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의뢰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집단과 법원에서 의뢰되는 보호처분 대상자 집단에게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세 집단간 프로그램 효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선경, 박인숙 (2005). 공격성 감소와 사회재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27, 57-78.
- 구현지, 문경주, 오경자 (2007). 문제해결기술 훈련의 비행 감소 효과: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345-364.
- 권경인 (2001). **집단상담 활동의 유형화 연구: 치료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경인, 조수연 (2010). 국내 집단상담 연구의 최근 경향과 과제. **인간이해**, 31(2), 63-84.
-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연구**. 서울: 학지사.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 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자경, 손정락 (2007).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충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1-19.
- 김주섭 (2000). **문제해결기술훈련과 심성수련훈련의 효과 비교: 학교폭력가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박영규 (20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87-115.
- 박찬걸 (20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19, 167-205.
- 손병덕 (2010). 범죄청소년 재범예방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함의. **한국범죄학**, 4(1), 3-29.
- 송성자, 정문자 (2002).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302-332.
- 송화숙 (200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질적 성과분석 및 향후과제. **소년보호연구**, 11, 62-104.

- 안명신, 이수연 (2008). 현실요법적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1), 221-236.
- 안산대안교육센터 (2012). 2012 **안산대안교육센터 교육계획**. 안산: 안산대안교육센터
- 양미진, 이영희 (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20.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원혜욱 (2009).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12, 75-98.
- 이재경 (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 193-211.
- 이정주 (2012). **우범소년의 비행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영, 김원희, 이동훈 (2011). 개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신념, 정서표현, ADHD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개슈탈트치료연구**, 1(2), 71-88.
- 이현아, 이기학 (2010). 학교상담 도움요소와 불만족 요소에 대한 개념도 연구: 중학교 내담자와 전문상담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23-149.
- 정유진, 유미숙 (2012). 한국판 청소년용 공격신념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99-417.
- 정윤정, 윤향숙, 신지현, 김성곤, 장성화 (2012). 집단미술치료가 소년보호시설 여자비행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27, 31-58.
-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53-82.
- 최영신, 김윤나, 김용성 (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프로그램(I):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이성식 (2010). **미국 OJJDP의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이순래 (2009).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길자 (2012). **Wee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학생, 교사, 상담자 인식 비교**.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순미 (2003). 중다목표관점에서의 성취목표와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간의 관계. **한국 교육심리학회**, 17, 291-312.
- 허경미 (2010). 사회적 발달이론 관점에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 방향. **소년보호 연구**, 15, 131-164.
- 황진규 (2010). 보호관찰 청소년 자기조절 프로그램 연구. **보호관찰**, 10(2), 287-324.
- 양은자 (2009). **기업상담 효과에 대한 세 관련 주체의 인식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Garland, A. F., Caroline, M., Lewczyk-Boxmeyer, M. S., Elaine, N., Gabayan, B., & Kristin, M. H. (2004). Multiple stakeholder agreement on desired outcome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services. *Psychiatric Services*, 55(6), 671-676.
- Guerra N. G., Kim, T. E., & Boxer, P. (2008). What works: Best practices with juvenile offenders. In R. D. Hoge et al. (eds.), *Treating the Juvenile Offender*(pp.79-102).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ndenberger, N., & Lipsey, M. W. (2005). The positiv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programs for offenders: A meta-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effective treat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451-476.
- Maxwell, T. J. (2009). *What do school counselors do? Examining High School*.
- Woolfenden, S. R., Williams, K., & Peat, J. K. (2002). Family and parenting interventions for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6, 251-256.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referred to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Kweon, Haesoo* · Kim, Hy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for the early stages of juvenile delinquents referred to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conducted a 1-week course of an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for 124 stud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and school maladjustment and conducted pre and post-follow up tests. The referring teachers observed behavioral changes amongst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for 2 weeks after their reinstatement to school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rom a variety of measurem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bility to exercise self-control and empathy improved, and aggression and attack beliefs decreased. With the exception of to attack beliefs, changes in self-control, empathy, aggression sustained in the follow test, and the importance, interest, and usability of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have steadily improved. Additionally, referring teachers observed that attendance, school regulations, self-discipline, self-esteem, empathy, caring, and the school bond between students showed positive changes. These changes were noticeably higher in the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than junior high students. In conclusion,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have an impact o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ts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delinquency. The researchers also note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effect

투고일 : 2013. 3. 11, 심사일 : 2013. 5. 6, 심사완료일 : 2013. 5. 14

---

* Chosun University

** Ministry of Justice